1 판매량 1 만족도 1 평가도

2027 자이스토리

Xi story

Xistory stands for eXtra Intensive Story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 ▲ 최신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수록(+ 2028 예시문항)
- ▲ 작품 갈래별 독해 공식 연습과 문제 풀이 특강
- ▲ 어휘 실력 향상을 위한 단원별 「어휘 + 개념어 테스트」
- ▲ 작품 분석 – 이것이 핵심, 인물 관계도, 입체 첨삭 해설
- ▲ 매력 오답, 왜 정답, 〈보기〉, 선택지 분석 해설
- ▲ 1등급 문제 – (단서) + (발상), 왜 틀렸나로 완벽 분석
- ▲ 고난도 최신 기출 모의고사 2회

[권말 부록] 어휘 + 개념어 총정리

대한민국 No.1 수능 기출문제집

국어 문학 기본 (고1)

수경출판사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29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헷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13		월 일	월 일
2	14~25		월 일	월 일
3	26~38		월 일	월 일
4	39~53		월 일	월 일
5	54~67		월 일	월 일
6	B 01~14		월 일	월 일
7	15~28		월 일	월 일
8	29~43		월 일	월 일
9	44~56		월 일	월 일
10	57~69		월 일	월 일
11	70~83		월 일	월 일
12	84~96		월 일	월 일
13	97~109		월 일	월 일
14	C 01~12		월 일	월 일
15	13~24		월 일	월 일
16	25~36		월 일	월 일
17	37~51		월 일	월 일
18	52~66		월 일	월 일
19	67~78		월 일	월 일
20	D 01~14		월 일	월 일
21	15~28		월 일	월 일
22	29~40		월 일	월 일
23	41~51		월 일	월 일
24	52~66		월 일	월 일
25	67~78		월 일	월 일
26	79~93		월 일	월 일
27	E 01~20		월 일	월 일
28	1회 모의고사 01~15		월 일	월 일
29	2회 모의고사 01~15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번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차 례

A 현대시 · 복합 1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4

- 사랑의 전당(윤동주), 보라, 감자꽃(박성우)

1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18

- 향수(장만영), 마음의 태양(조지훈)
- 상한 영혼을 위하여(고정희), 장미와 가시(김승희)
- 연두에 울다(나희덕),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백석)
- 적막한 식욕(박목월), 찬밥(문정희)
- 소년(윤동주), 나무의 꿈(손택수)
- 광야(이육사), 울타리 밖(박용래)
-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함민복)

2 추억과 회상, 그리움을 담은 시 28

- 고향의 천정 1(이성선), 밥물 눈금(손택수)
- 성탄제(김종길), 수의 비밀(한용운)
- 고야(백석), 겨울산에 가면(나희덕)

3 자연과 생명, 사랑을 그린 시 32

- 낙엽송(박두진), 소등(박남수)
- 청산백운도(신석정), 새 옷 입는 법(문정희)
- 천수답(박목월), 민들레꽃(이형기)
- 위로(윤동주), 달밤(황동규)
- 사개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김영랑), 따뜻한 달걀(정진규)
- 춘설(정지용), 첫사랑(고재종)

4 현대시 + 제시문 복합 40

- 팔원 - 서행시초 3(백석), 기억할 만한 지나침(기형도)
- 처서기(박성룡), 성숙(고재종)
- 길(김기림), 한계(천양희)

5 현대시 + 고전 수필 복합 44

- 눈 오는 지도(윤동주), 만나는 법(김종철), 떠 있는 삶(정약용)

어휘 + 개념어 TEST 47

B 고전 시가 · 복합 49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50

- 민농가(정해정), 박장대(유희)

1 고전 시가 54

- 훈민가(정철), 복선화음록(작자 미상)
- 어부사시사(윤선도), 초당춘수곡(남석하)
- 유민탄(어무적), 장육당육가(이별)
- 남은 다 자는 밤에(송이), 장상사(성현), 상사곡(박인로)

2 고전 시가 + 현대시 복합 60

-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김기택), 두암육가(김약련)

3 고전 시가 + 현대시 + 제시문 복합 62

- 감나무(문인수), 백상루별곡(이현)

4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복합 64

- 청춘과부가(작자 미상), 갈까 보다 말까 보다(작자 미상),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 강호사시가(맹사성), 상춘곡(정극인), 입춘(백석)
- 십육영(권섭), 출새곡(조우인), 태안사 가는 길에서(공선옥)
- 면앙정가(송순), 가재미·나귀(백석)
- 훈민가(정철), 괜찮아(장영희)
- 설월죽(이황), 매화(권섭), 세한도(목성균)
- 표해가(이방익), 여행(김기림)
- 고공답주인가(이원익), 돌탑과 잔돌(문태준)
- 일민가(윤이후), 화춘의장(이효석)

5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복합 84

- 탄궁가(정훈), 이존당기(박지원)
- 석춘사(작자 미상), 눈물의 근원(심노숭)
- 농부사(김기홍), 판가점우사상기(유희)
- 채미가(김기홍), 기황전설(정온)
- 착정가(이운영), 치정설(박장원)
- 만흥(윤선도), 전간대(홍석주)
- 합강정가(작자 미상), 귀전록(이현보), 조설(남구만)
- 노부탄(순천 김 씨), 청학동기(이인로)
- 속미인곡(정철), 주옹설(권근)

어휘 + 개념어 TEST 103

C 현대 소설 105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06

- 댈러웨이의 창(박성원)

1 광복 이전 (~1945년) 110

- 복덕방(이태준)
- 땡볕(김유정)

2 광복 이후 ~ 산업화 (1960년대) 114

- 메아리(오영수)
- 흑산도(전광용)

3 경제 성장과 그 이면 (1970년대) 118

- 장석조네 사람들(김소진)
- 신들의 주사위(황순원)
-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 암소(이문구)
- 서글픈 순방(박완서)
- 귀향 연습(이청준)
- 몽기미 풍경(송기숙)

4 민주주의의 발전 (1980년대) 132

- 후남아, 밥 먹어라(박완서)
- 파편(이동하)
-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전상국)

5 개인주의와 세계화 (1990년대) 138

- 코끼리(김재영)
- 먼 바다(공선옥)
- 하얀 배(윤후명)
-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윤흥길)
- 투명 인간(성석제)
- 도도한 생활(김애란)

어휘 + 개념어 TEST 150

동아리 소개 / 서울대 카페인 152

D 고전 소설 15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54
- 왕시전(작자 미상)

1 영웅 · 군담 소설 158
- 정수경전(작자 미상)
- 옥주호연(작자 미상)
- 하진양문록(작자 미상)
- 홍계월전(작자 미상)
- 쌍주기연(작자 미상)
- 장국진전(작자 미상)
- 신유복전(작자 미상)
- 정각록(작자 미상)
- 태원지(작자 미상)
- 최현전(작자 미상)
- 임호은전(작자 미상)
- 세경본풀이(작자 미상)

2 가정 · 애정 소설 182
- 유생전(작자 미상)
- 쌍주기연(작자 미상)
- 옥루몽(남영로)
- 현몽쌍룡기(작자 미상)
- 화산기봉(작자 미상)
- 송부인전(작자 미상)
- 숙향전(작자 미상)

3 판소리계 소설 196
- 이춘풍전(작자 미상)
- 춘향전(작자 미상)
- 토공전(작자 미상)
- 흥부전(작자 미상)
- 수궁가(유성준 창본)

어휘 + 개념어 TEST 206

동아리 소개 / 연세대 연세국궁부 208

어휘 총정리 244

빠른 정답 찾기 257

E 극 문학 · 복합 209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210
- 칠산리(이강백)

1 희곡 214
- 그게 아닌데(이미경)
- 보석과 여인(이강백)

2 시나리오 218
- 대장금(김영현)
- 말아톤(정윤철, 윤진호, 송예진)
- 뿌리 깊은 나무(김영현, 박상연)

3 극 + 소설 복합 224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원작 · 박종원 각색)

어휘 + 개념어 TEST 227

Special 고난도 최신기출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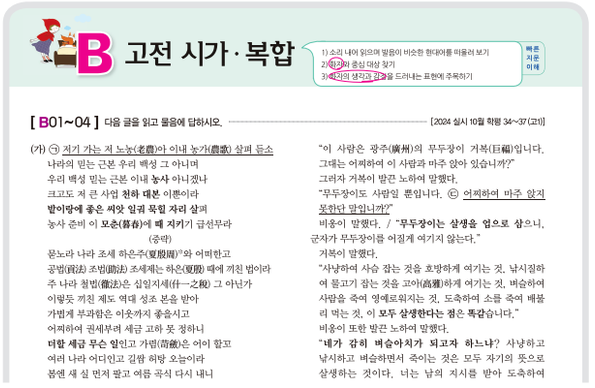
1회 모의고사 (고2 – 2026 실시 3월 학력평가) 230
- 김학공전(작자 미상)
- 덴동어미화전가(작자 미상), 자경(박인로), 효애오잠(박세당)
- 도깨비 잔치(송기숙)
- 필라멘트(이동순), 마지막 느림보-산책시 3(이문재)

2회 모의고사 (고2 – 2025 실시 3월 학력평가) 237
- 과녁(이청준)
- 금환기봉(작자 미상)
- 성씨보-오래인 관습-그것은 전통을 말함이다.(오장환),
  미농인찰지(김수영)
- 수남방옹가(정훈), 천정기(신흠)

작품 독해 공식+문제 풀이 특강으로 빠르게 국어 1등급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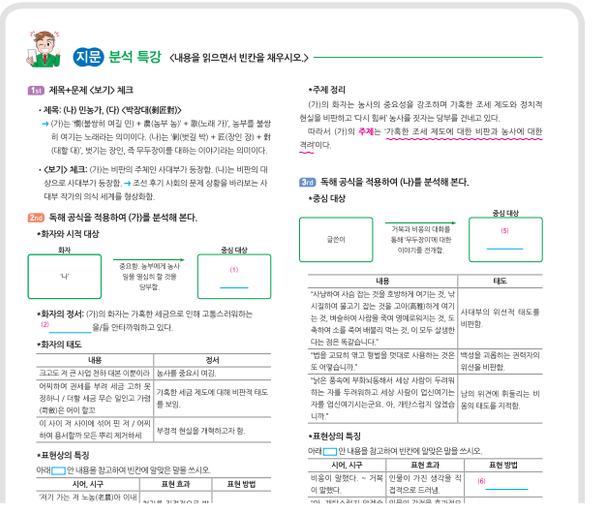
1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

- 문학 작품을 빠르고 쉽게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갈래별로 구분하고, 갈래별 특징에 맞게 독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 문학, 수필의 독해 공식으로 국어 문학의 모든 지문을 체계적으로 읽어 낼 수 있습니다.
- **문학 갈래 쉽게 읽는 법**: 갈래별로 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학습의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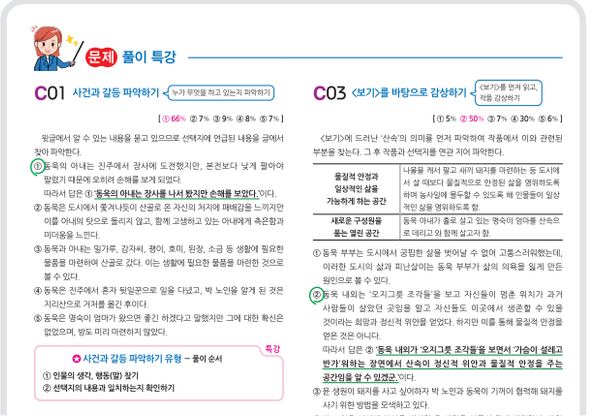
2 지문 분석 특강으로 독해 공식 적용 훈련

- 갈래별 독해 공식을 기출문제에 실제 적용하며 작품을 독해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해, 지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문제 풀이 특강으로 대표 문제 유형 정복!

- 갈래별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특강으로 정리했습니다.
- 문제 유형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선지별 선택률: 선지별 선택률을 제시하여 문제의 난이도와 매력적인 선지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Tip: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과 적용법을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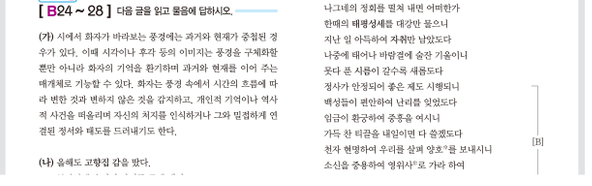
4 갈래별 분류 –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 **현대시 · 복합**: 주제별로 분류, 현대시와 기타 지문 복합 유형
- **고전 시가 · 복합**: 시 형식으로 분류, 고전시가와 기타 지문 복합 유형
- **현대 소설**: 시대순으로 분류 • **고전 소설**: 주제별로 분류
- **극 문학 · 복합**: 희곡과 시나리오로 분류, 극 문학과 기타 지문 복합 유형

● **제한 시간**: 수능 실전에서 한 지문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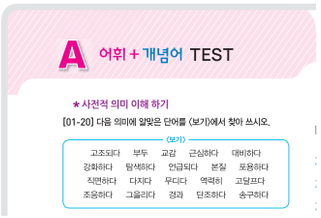
● **출처 표시**
예) 2026 실시 3월 학평(고1): 2026년 3월에 실시한 고1 학력평가

● **난이도**: ✪ 1등급 대비, ✻✻✻ – 상, ✻✻❀ – 중, ✻❀❀ – 하



5 어휘 + 개념어 TEST

갈래별 학습이 끝난 후에는 관련 어휘를 테스트하며 복습해 보세요.



6 어휘 + 개념어 총정리

지문 · 문제를 읽다 모르는 어휘 · 개념어가 나오면 어휘 풀이를 참고하세요.



7 입체 첨삭 해설!

시

❶ 화자, 중심 대상
시의 화자, 중심 대상에 표시했습니다.

❷ 상황, 정서, 태도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비롯해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❸ 표현상 특징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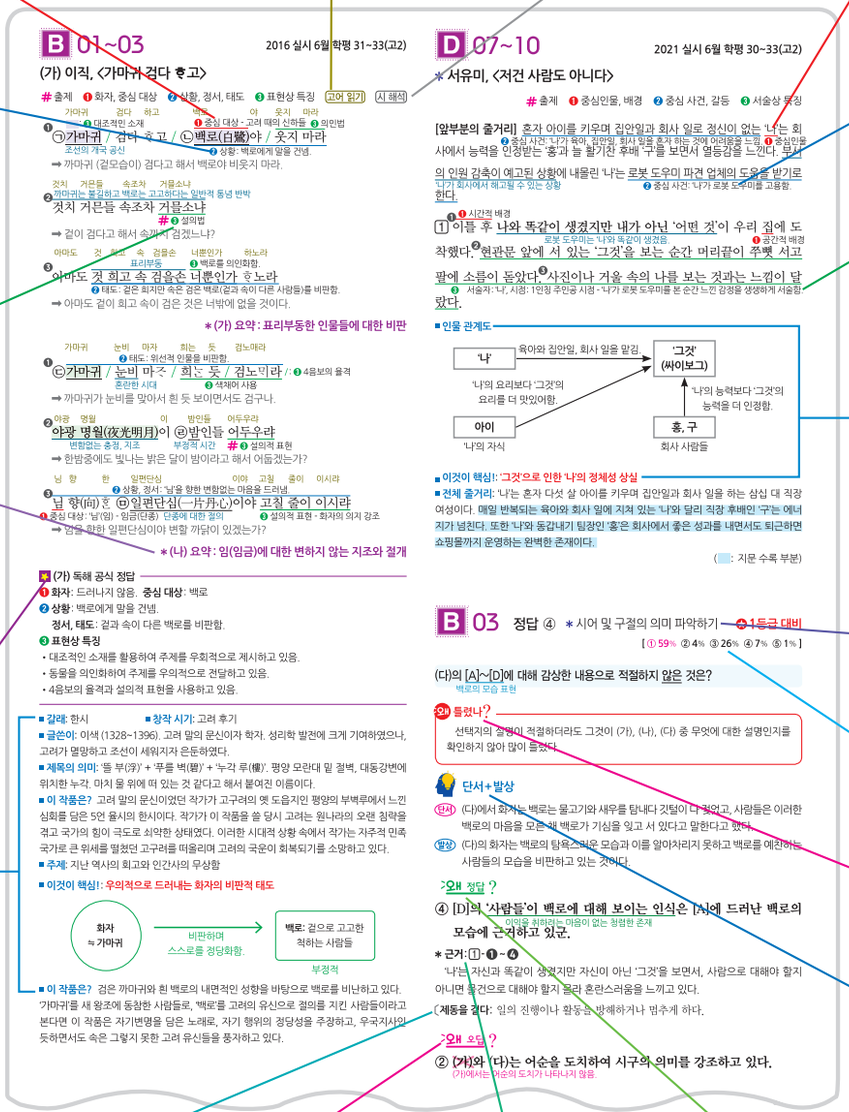
✻ 연 요약
각 연의 내용을 요약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독해 공식 정답
각 갈래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 작품 설명
문학 작품의 갈래, 글쓴이,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주제, 창작 시기, 이것이 핵심! 등 제시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고어 읽기
고어(옛 한글)의 소리를 현대어로 표기하였습니다.

시 해석
시의 내용을 쉽게 풀이했습니다.



소설

❶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❷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❸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작품 설명
소설의 장면 요약, 인물 관계도, 전체 줄거리와 지문 수록 부분, 이것이 핵심! 등을 통해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문제 유형 분석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 선택률
학생들이 헷갈렸던 선지를 밝혀주기 위하여 선지별 선택률을 수록하였습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 어휘+개념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어휘 및 개념어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제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항 배열 및 구성 [기출 397문항, 어휘+개념어 테스트 290문항]

❶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 11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우수 문항 선별 수록
- 최신 2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전 문항 수록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수록

397문항

-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 새 수능 · 내신 · 학력평가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11개년 학력평가 기출문제에서 우수 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❷ 문학 독해력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어휘+개념어 테스트 수록 (290문항)
- 갈래별 빈출 주요 어휘를 점검할 수 있는 '어휘 + 개념어 TEST'를 단원마다 구성하였습니다.

❸ 어휘+개념어 총정리(표제어 643개)
- 지문과 문제 속 어휘와 개념어의 뜻을 모두 모아 예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지문을 읽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모르는 어휘와 개념어가 있다면, 어휘 + 개념어 총정리에서 그 뜻과 용례를 확인해 보세요.

[국어 문학 기본 문항 구성표] – 고1 학력평가 문학 문항

실시 연도	3월	6월	9월	11월	문항 수	비고
2026	15	15	15		45	
2025	15	15	15	15	60	
2024	15	15	15	15	60	
2023	12	15	15	15	57	
2022	11	15	15	12	53	•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수록
2021	8	10	7	4	29	• 11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우수 문항 선별수록
2020			12	8	20	
2019	7		3	4	14	• 2028학년도 수능 예시 15문항 수록
2018	3	3		4	10	• 최신 2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문항 수록
2017	2				2	
2016				2	2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15	
고2 학력평가 문항					30	
총 문항 수					397	

수록 작품 찾아보기 (최신 기출문제순 수록)

〈현대시〉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6 실시 9월 학평 43~45	A 54~56	팔원 - 서행시초 3 (백석)
2026 실시 9월 학평 43~45	A 54~56	기억할 만한 지나침 (기형도)
2026 실시 6월 학평 43~45	A 01~03	사랑의 전당(윤동주)
2026 실시 6월 학평 43~45	A 01~03	보라, 감자꽃(박성우)
2026 실시 3월 학평 31~35	B 24~28	감나무(문인수)
2025 실시 10월 학평 43~45	A 57~59	처서기(박성룡)
2025 실시 10월 학평 43~45	A 57~59	성숙(고재종)
2025 실시 9월 학평 31~33	A 04~06	향수(장만영)
2025 실시 9월 학평 31~33	A 04~06	마음의 태양(조지훈)
2025 실시 6월 학평 43~45	A 07~09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2025 실시 6월 학평 43~45	A 07~09	장미와 가시(김승희)
2025 실시 3월 학평 26~29	A 10~13	연두에 울다(나희덕)
2025 실시 3월 학평 26~29	A 10~13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2024 실시 10월 학평 31~33	A 36~38	낙엽송(박두진)
2024 실시 10월 학평 31~33	A 36~38	소등(박남수)
2024 실시 9월 학평 26~28	A 45~47	위로(윤동주)
2024 실시 9월 학평 26~28	A 45~47	달밤(황동규)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14~16	적막한 식욕(박목월)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14~16	찬밥(문정희)
2024 실시 3월 학평 16~20	B 19~23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김기택)
2023 실시 11월 학평 39~41	A 39~41	청산백운도(신석정)
2023 실시 11월 학평 39~41	A 39~41	새 옷 입는 법(문정희)
2023 실시 9월 학평 27~29	A 42~44	천수답(박목월)
2023 실시 9월 학평 27~29	A 42~44	민들레꽃(이형기)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17~19	소년(윤동주)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17~19	나무의 꿈(손택수)
2023 실시 3월 학평 16~18	A 26~28	고향의 천정 1(이성선)
2023 실시 3월 학평 16~18	A 26~28	밥물 눈금(손택수)
2022 실시 9월 학평 43~45	A 20~22	광야(이육사)
2022 실시 9월 학평 43~45	A 20~22	울타리 밖(박용래)
2022 실시 6월 학평 29~31	A 23~25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2022 실시 6월 학평 29~31	A 23~25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함민복)
2022 실시 3월 학평 31~33	A 48~50	사개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 (김영랑)
2022 실시 3월 학평 31~33	A 48~50	따뜻한 달걀(정진규)
2021 실시 9월 학평 27~29	A 51~53	춘설(정지용)
2021 실시 9월 학평 27~29	A 51~53	첫사랑(고재종)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29~31	성탄제(김종길)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29~31	수의 비밀(한용운)
2020 실시 11월 학평 25~28	A 32~35	고야(백석)
2020 실시 11월 학평 25~28	A 32~35	겨울산에 가면(나희덕)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A 63~67	눈 오는 지도(윤동주)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A 63~67	만나는 법(김종철)
2028 수능 예시문항 43~45	A 60~62	길(김기림)
2028 수능 예시문항 43~45	A 60~62	한계(천양희)
2026 실시 3월 학평 43~45(고2)	1회 13~15	필라멘트(이동순)
2026 실시 3월 학평 43~45(고2)	1회 13~15	마지막 느림보-산책시 3(이문재)
2025 실시 3월 학평 39~41(고2)	2회 9~11	성씨보-오래인 관습-그것은 전통을 말함이다.(오장환)
2025 실시 3월 학평 39~41(고2)	2회 9~11	미농인찰지(김수영)

〈고전 시가〉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6 실시 9월 학평 34~38	B 70~74	탄궁가(정훈)
2026 실시 6월 학평 39~42	B 75~78	석춘사(작자 미상)
2026 실시 3월 학평 31~35	B 24~28	백상루별곡(이현)
2025 실시 10월 학평 34~38	B 79~83	농부사(김기홍)
2025 실시 9월 학평 38~41	B 84~87	채미가(김기홍)
2025 실시 6월 학평 38~42	B 29~33	청춘 과부가(작자 미상)
2025 실시 6월 학평 38~42	B 29~33	갈까 보다 말까 보다(작자 미상)
2025 실시 3월 학평 39~42	B 93~96	만흥(윤선도)
2024 실시 10월 학평 34~37	B 01~04	민농가(정해정)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97~101	합강정가(작자 미상)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97~101	귀전록(이현보)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34~38	강호사시가(맹사성)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34~38	상춘곡(정극인)

2024 실시 3월 학평 16~20	B 19~23	두암육가(김약련)
2023 실시 11월 학평 35~38	B 102~105	노부탄(순천 김 씨)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39~43	십육영(권섭)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39~43	출새곡(조우인)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52~56	설월죽(이황)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52~56	매화(권섭)
2023 실시 3월 학평 23~27	B 61~65	고공답주인가(이원익)
2022 실시 11월 학평 34~37	B 66~69	일민가(윤이후)
2022 실시 9월 학평 26~29	B 48~51	훈민가(정철)
2022 실시 6월 학평 32~35	B 106~109	속미인곡(정철)
2022 실시 3월 학평 34~37	B 44~47	면앙정가(송순)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B 57~60	표해가(이방익)
2020 실시 11월 학평 39~42	B 05~08	훈민가(정철)
2020 실시 11월 학평 39~42	B 05~08	복선화음록(작자 미상)
2020 실시 9월 학평 29~31	B 09~11	초당춘수곡(남석하)
2020 실시 9월 학평 29~31	B 09~11	어부사시사(윤선도)
2019 실시 9월 학평 31~33	B 12~14	유민탄(어무적)
2019 실시 9월 학평 31~33	B 12~14	장육당육가(이별)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남은 다 자는 밤에(송이)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장상사(성현)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상사곡(박인로)
2028 수능 예시문항 34~38	B 88~92	착정가(이운영)
2026 실시 3월 학평 34~38(고2)	1회 4~8	덴동어미화전가(작자 미상)
2026 실시 3월 학평 34~38(고2)	1회 4~8	자경(박인로)
2025 실시 3월 학평 42~45(고2)	2회 12~15	수남방옹가(정훈)

〈현대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6 실시 9월 학평 39~42	C 17~20	장석조네 사람들(김소진)
2026 실시 6월 학평 35~38	C 44~47	후남아, 밥 먹어라(박완서)
2026 실시 3월 학평 43~45	C 01~03	댈러웨이의 창(박성원)
2025 실시 10월 학평 39~42	C 21~24	신들의 주사위(황순원)
2025 실시 9월 학평 34~37	C 48~51	파편(이동하)
2025 실시 6월 학평 34~37	C 56~59	코끼리(김재영)
2025 실시 3월 학평 22~25	C 29~32	암소(이문구)
2024 실시 10월 학평 38~41	C 33~36	서글픈 순방(박완서)
2024 실시 9월 학평 29~32	C 60~63	먼 바다(공선옥)
2024 실시 6월 학평 40~42	C 10~12	메아리(오영수)
2024 실시 3월 학평 25~28	C 52~55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전상국)
2023 실시 11월 학평 31~34	C 13~16	흑산도(전광용)
2023 실시 9월 학평 43~45	C 37~39	귀향 연습(이청준)
2023 실시 6월 학평 26~28	C 64~66	하얀 배(윤후명)
2023 실시 3월 학평 34~37	C 67~70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윤흥길)
2022 실시 11월 학평 30~33	C 40~43	몽기미 풍경(송기숙)
2022 실시 9월 학평 35~38	C 71~74	투명 인간(성석제)
2022 실시 6월 학평 41~45	E 16~2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2021 실시 6월 학평 26~28	C 04~06	복덕방(이태준)
2021 실시 3월 학평 34~37	C 75~78	도도한 생활(김애란)
2018 실시 6월 학평 24~26	C 07~09	땡볕(김유정)
2028 수능 예시문항 39~42	C 25~28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2026 실시 3월 학평 39~42(고2)	1회 9~12	도깨비 잔치(송기숙)
2025 실시 3월 학평 31~34(고2)	2회 1~4	과녁(이청준)

〈고전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6 실시 9월 학평 31~33	D 05~07	정수경전
2026 실시 6월 학평 31~34	D 48~51	유생전
2026 실시 3월 학평 36~39	D 08~11	옥주호연
2025 실시 10월 학평 31~33	D 12~14	하진양문록
2025 실시 9월 학평 42~45	D 52~55	쌍주기연
2025 실시 6월 학평 26~28	D 15~17	홍계월전(작자 미상)
2025 실시 3월 학평 43~45	D 18~20	쌍주기연(작자 미상)
2024 실시 10월 학평 42~45	D 59~62	현몽쌍룡기
2024 실시 9월 학평 43~45	D 45~47	세경본풀이(작자 미상)
2024 실시 6월 학평 31~34	D 01~04	왕시전
2024 실시 3월 학평 29~32	D 75~78	이춘풍전(작자 미상)
2023 실시 11월 학평 42~45	D 41~44	임호은전(작자 미상)
2023 실시 9월 학평 39~42	D 29~32	정각록
2023 실시 6월 학평 29~32	D 21~24	장국진전(작자 미상)
2022 실시 11월 학평 42~45	D 63~66	화산기봉(작자 미상)
2022 실시 9월 학평 39~42	D 71~74	숙향전
2022 실시 6월 학평 26~28	D 91~93	수궁가
2022 실시 3월 학평 42~45	D 79~82	춘향전
2021 실시 9월 학평 42~45	D 33~36	태원지
2021 실시 6월 학평 29~32	D 87~90	흥부전
2021 실시 3월 학평 42~45	D 83~86	토공전
2020 실시 9월 학평 42~45	D 37~40	최현전
2019 실시 11월 학평 42~45	D 67~70	송부인전
2019 실시 3월 학평 42~45	D 25~28	신유복전(작자 미상)
2028 수능 예시문항 31~33	D 56~58	옥루몽(남영로)
2026 실시 3월 학평 31~33(고2)	1회 1~3	김학공전(작자 미상)
2025 실시 3월 학평 35~38(고2)	2회 5~8	금환기봉(작자 미상)

〈현대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5 실시 6월 학평 38~42	B 29~33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34~38	입춘(백석)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39~43	태안사 가는 길에서(공선옥)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52~56	세한도(목성균)
2023 실시 3월 학평 23~27	B 61~65	돌탑과 잔돌(문태준)
2022 실시 11월 학평 34~37	B 66~69	화춘의장(이효석)
2022 실시 9월 학평 26~29	B 48~51	괜찮아(장영희)
2022 실시 3월 학평 34~37	B 44~47	가재미·나귀(백석)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B 57~60	여행(김기림)

〈고전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6 실시 9월 학평 34~38	B 70~74	이존당기(박지원)
2026 실시 6월 학평 39~42	B 75~78	눈물의 근원(심노숭)
2025 실시 10월 학평 34~38	B 79~83	판가점우사상기(유희)
2025 실시 9월 학평 38~41	B 84~87	기황전설(정온)
2025 실시 3월 학평 39~42	B 93~96	전간대(홍석주)
2024 실시 10월 학평 34~37	B 01~04	박장대(유희)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97~101	조설(남구만)
2023 실시 11월 학평 35~38	B 102~105	청학동기(이인로)
2022 실시 6월 학평 32~35	B 106~109	주옹설(권근)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A 63~67	떠 있는 삶(정약용)
2028 수능 예시문항 34~38	B 88~92	치정설(박장원)
2026 실시 3월 학평 34~38(고2)	1회 4~8	효애오잠(박세당)
2025 실시 3월 학평 42~45(고2)	2회 12~15	천정기(신흠)

〈극문학〉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6 실시 3월 학평 40~42	E 01~03	칠산리(이강백)
2024 실시 3월 학평 44~45	E 04~05	그게 아닌데(이미경)
2022 실시 6월 학평 41~45	E 16~2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원작, 박종원 각색)
2019 실시 3월 학평 39~41	E 08~10	대장금(김영현 각본)
2018 실시 3월 학평 34~36	E 11~13	말아톤(정윤철 · 윤진호 · 송예진 각본)
2017 실시 3월 학평 41~42	E 14~15	뿌리 깊은 나무(김영현 · 박상연)
2016 실시 11월 학평 38~39	E 06~07	보석과 여인(이강백)

문학

* 문학의 주요 갈래

문학 :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

운문 :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 운율이 느껴지는 글		**산문** :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쓴 글		
시	시조	소설	극	수필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작품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	연극 공연이나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쓰인 이야기	일정한 형식 없이 생각, 느낌, 체험을 써 내려간 글
A 현대시	**B** 고전 시가	**C** 현대 소설 **D** 고전 소설	**E** 극	수필

* 문학 갈래별 독해 훈련 : 문학 작품을 빠르고 쉽게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갈래별로 구분하고, 갈래별 특징에 맞게 독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래	**A** 현대시, **B** 고전 시가	**C** 현대 소설, **E** 극 **D** 고전 소설	수필
지문 독해 공식	❶ 화자, 중심 대상 찾기 ❷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❸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❶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❷ 중심 사건, 갈등 파악하기 ❸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❶ 중심 대상 찾기 ❷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❸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B 고전 시가 · 복합

1. 고전 시가
2. 고전 시가 + 현대시 복합
3. 고전 시가 + 현대시 + 제시문 복합
4.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복합
5.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복합

★ 고전 시가

상고 시대의 고대 가요부터 조선시대의 시조에 이르기까지 개화기 이전의 한국의 시와 노래를 통칭한다.

시대에 따라 정형화된 형식이 나타났다.

고전 시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의 형식에 따라 나누어서 수록했다.

★ 고전 시가 독해 공식

고전 시가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3단계 공식으로 어떤 작품이라도 스스로 독해할 수 있다.

★ 고전 시가 — 독해 공식

❶ 화자, 중심 대상 찾기
❷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❸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시 복합, 수필 독해 공식

시와 수필, 시와 소설 등 갈래가 함께 묶여 출제되거나, 시와 설명문이 같이 출제되는 것을 시 복합이라고 한다.

★ 시 복합 — 독해 공식

❶ 설명문 혹은 <보기> 먼저 읽기
❷ 시, 수필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 읽기
❸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

★ 수필 — 독해 공식

❶ 중심 대상 찾기
❷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❸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출제 지문 분석

실시 연도		출제 지문	난이도
2026	3월	제시문+현대시+고전시가 (가) 시적 풍경과 감각적 이미지의 기능 (나) 감나무(문인수) (다) 백상루별곡(이현)	✲✲✲
	6월	고전시가+고전 수필 (가) 석춘사(작자 미상) (나) 눈물의 근원(심노승)	✲✲✲
	9월	고전시가+고전 수필 (가) 탄궁가(정훈) (나) 이존당기(박지원)	✲✲✲
	10월		
2025	3월	(가) 만흥(윤선도) (나) 전간대(홍석주)	✲✲✲
	6월	(가) 청춘 과부가(작자 미상) (나) 갈까 보다 말까 보다(작자 미상) (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
	9월	(가) 채미가(김기홍), (나) 기황전설(정온)	✲✲
	10월	고전시가+고전 수필 (가) 농부사(김기홍) (나) 판가점우사상기(유희)	✲✲✲
2024	3월	(가)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김기택) (나) 두암육가(김약련)	✲✲
	6월	(가) 강호사시가(맹사성), (나) 상춘곡(정극인) (다) 입춘(백석)	✲✲
	9월	(가) 합강정가(작자 미상), (나) 귀전록(이현보) (다) 조설(남구만)	✲✲✲
	10월	(가) 민농가(정해정), (나) 박장대(유희)	✲✲



B 고전 시가 · 복합

1) 소리 내어 읽으며 발음이 비슷한 현대어를 떠올려 보기
2) 화자와 중심 대상 찾기
3)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에 주목하기

빠른 지문 이해

[B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 실시 10월 학평 34~37(고1)]

(가) ㉠ 저기 가는 저 노농(老農)아 이내 농가(農歌) 살펴 듣소
나라의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나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 대본** 이뿐이라
밭이랑에 좋은 씨앗 일궈 묵힐 자리 살펴
농사 준비 이 **모춘(暮春)에 때 지키**기 급선무라
(중략)
묻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夏殷周)*와 어떠한고
공법(貢法) 조법(助法) 조세제는 하은(夏殷) 때에 끼친 법이라
주 나라 철법(徹法)은 십일지세(什一之稅) 그 아닌가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가볍게 부과함은 이웃까지 좋을시고
어찌하여 권세부려 세금 고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렴(苛斂)은 어이 할꼬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쌈 허탕 오늘이라
봄엔 새 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 아니 두려울까
아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내 중세(重稅) 어이 할꼬 번거롭다 사양 마오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 핀 저 악초(惡草)를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제거 못 하면 어이 하리 송인 알묘(宋人揠苗) 이 때문이라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에 가정(苛政)이라
금년에 못 다 하면 명년 제초 누가 할꼬
새싹 나와도 안 여무니 악초의 탓 그 아닌가
묘(苗) 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며
조 밭에 있는 쭉정이 오랑캐와 어떠한고
㉡ 풍우 뒤에 저 황충(蝗虫)* 도적떼처럼 생기는구나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곤고(困苦)하다*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기를손가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 보필 않을 손가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악초 제거 좋은 벼 재배 전가(田家)의 급무로다
아아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꾸나 – 정해정, 〈민농가〉

* 하은주: 고대 중국의 세 국가인 하, 은, 주를 일컫는 말
* 황충: 메뚜기
* 곤고하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나) 비옹(否翁)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패랭이를 쓰고 동달이를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어떤 ⓐ 객이 이르러 깜짝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광주(廣州)의 무두장이 거복(巨福)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까?"

그러자 거복이 발끈 노하여 말했다.

"무두장이도 사람일 뿐입니다. ㉢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비옹이 말했다. /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으니, 군자가 무두장이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다."

거복이 말했다.

"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 낚시질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고아(高雅)하게 여기는 것, 벼슬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 도축하여 소를 죽여 배불리 먹는 것, 이 **모두 살생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비옹이 또한 발끈 노하여 말했다.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하면서 죽이는 것은 모두 자기의 뜻으로 살생하는 것이다.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 도축하여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비루하지 않다고 여기느냐?"

거복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뵈었습니다. 어떤 ⓑ 객이 왔는데, 재상의 키가 작은데도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도 그 객은 곧다고 말했습니다. 이 객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왔는데, 객의 이름이 이미 황지(黃紙)*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재상의 키가 작은데 다른 ⓒ 객은 키가 작다고 말했고,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 그 객은 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객이 가고 난 뒤,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을 급히 불러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라고 말했던 객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다는 말이 들렸고, 귓속말을 들었던 객이 다시 왔는데 이미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는 것도 똑같고,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작은 것을 작다 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을 가축을 괴롭히는 것에 비견할 수는 없겠으나,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옹이 멍해져 억지로 응답했다.

"네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 너는 손으로 흉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 벼슬하는 자의 경우엔 이런 것이 있느냐?"

거복이 또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옹께서 분간하시는 것이 과연 이처럼 보잘것없군요.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남의 굽은 허리를 곧다고 하여 이름이 적힌 종이를 누렇게 물들이는 것이 똥에 더럽혀진 신발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작은 키를 작다 하고 굽은 허리를 굽었다고 한 사람을 죽여, 입은 옷을 붉게 물들이는 것이 어찌 피에 젖은 옷소매와 다르겠습니까.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도끼를 휘두르는 자이니, 소인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고향 이웃들에게만 알려질 뿐입니다. 옹께서는 선비이신데, 사실의 정밀함을 궁구하지 않은 채 단지 대략적인 것만 논하고, 마음보의 세밀함은 살피지 않은 채 단지 드러난 현상만 갖고 말씀하시어, ㉤ 낡은 풍속에 부화뇌동해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는 자를 업신여기시는군요.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비옹이 이에 말문이 막혀 조용히 인사하고, 읍하고 문에서 전송해주었다. – 유희, 〈박장대(剝匠對)〉

* **황지**: 과거 급제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누런색 종이

B01 ❀❀❀ 2024 실시 10월 학평 34(고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와 달리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달리 (가)는 열거와 연쇄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물음의 형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B02 ❀❀❀ 2024 실시 10월 학평 35(고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청자를 부르며 말을 건네는 모습이 드러난다.
② ㉡: 부정적 상황을 유발하는 자연물이 드러난다.
③ ㉢: 자신을 무시하는 상대의 발언에 대한 분한 감정이 드러난다.
④ ㉣: 상대의 처지가 자신처럼 열악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⑤ ㉤: 남에게 동조하는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B03 ❀❀❀ 2024 실시 10월 학평 36(고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② ⓑ는 ⓒ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③ ⓒ는 ⓑ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④ ⓐ와 ⓑ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인물의 행동을 지지한다.
⑤ ⓑ와 ⓒ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다.

B04 ✪ 1등급 대비 2024 실시 10월 학평 37(고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는 비판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대부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인 사대부는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며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치 현실을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는 무두장이의 삶을 낮추어 보는 위선적 태도를 보여 주는 인물로 그려져 비판의 대상이 된다.

① (가)의 '밭이랑에 좋은 씨앗 일궈 묵힐 자리 살'피고 '모춘'에 '때'를 '지키'라는 것에서 시기에 맞게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화자인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의 농부에게 '악초'를 '제거'하는 것과 '소인'을 '쫓'는 '정치'의 필요성을 함께 말하는 것에서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화자인 사대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③ (나)의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다는 비옹의 말에 대해 '모두 살생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거복이 반론하는 것에서 등장인물인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④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더할 세금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과, (나)에서 거복이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등장인물인 사대부에게 말하는 것에서 당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대부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⑤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사'를 '천하 대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모습을,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고 하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이의 삶을 낮추어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정답 및 해설 56~63p



지문 분석 특강 <내용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우시오.>

1st 제목+문제 <보기> 체크

- **제목: (나) 민농가, (다) <박장대(剝匠對)>**
  → (가)는 '憫(불쌍히 여길 민) + 農(농부 농)' + 歌(노래 가)', 농부를 불쌍히 여기는 노래라는 의미이다. (나)는 '剝(벗길 박) + 匠(장인 장) + 對(대할 대)', 벗기는 장인, 즉 무두장이를 대하는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 **<보기> 체크:** (가)는 비판의 주체인 사대부가 등장함. (나)는 비판의 대상으로 사대부가 등장함. →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 세계를 형상화함.

2nd 독해 공식을 적용하여 (가)를 분석해 본다.

***화자와 시적 대상**

화자		중심 대상
'나'	중요함. 농부에게 농사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함.	(1) _____

***화자의 정서:** (가)의 화자는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2) _____ 을/들 안타까워하고 있다.

***화자의 태도**

내용	정서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 대본 이뿐이라	농사를 중요시 여김.
어찌하여 권세를 부려 세금 고하 못 정하니 /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렴(苛斂)은 어이 할꼬	가혹한 세금 제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임.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 핀 저 /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부정적 현실을 개혁하고자 함.

***표현상의 특징**

아래 ▭ 안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어, 시구	표현 효과	표현 방법
'저기 가는 저 노농(老農)아 이내 농가(農歌) 살펴 듣소' / 아아 농부들아 ~	청자를 직접적으로 밝혀 주의를 환기함.	말을 건네는 어조
'나라의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 내 농사 아니겠나'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대구법, 설의법
'묻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夏殷周)와 어떠한고'	나라 조세와 중국 조세를 비교함.	의문형 어미 사용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쌈 허탕 오늘이라'	시적 상황을 강조함.	(3) _____
묘(苗) 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며 / 풍우 뒤에 저 황충(蝗)* 도적떼처럼 생기는구나	부정적 대상의 속성을 강조함.	(4) _____

***대구법**: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을 맞추어 배치하는 표현 방법
***문답법**: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
***설의법**: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
***은유법**: 'A는 B이다'의 형태로 빗대어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
***의문형 어미**: 문장의 끝에 붙어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 '-(으)냐', '-니' 등

***주제 정리**

(가)의 화자는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혹한 조세 제도와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고 '다시 힘써' 농사를 짓자는 당부를 건네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가혹한 조세 제도에 대한 비판과 농사에 대한 격려'이다.

3rd 독해 공식을 적용하여 (나)를 분석해 본다.

***중심 대상**

글쓴이	거북과 비옹의 대화를 통해 '무두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함.	중심 대상 (5) _____

내용	태도
"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 낚시질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고아(高雅)하게 여기는 것, 벼슬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 도축하여 소를 죽여 배불리 먹는 것, 이 모두 살생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함.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백성을 괴롭히는 권력자의 위선을 비판함.
"낡은 풍속에 부화뇌동해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는 자를 업신여기시는군요.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남의 위견에 휘둘리는 비옹의 태도를 지적함.

***표현상의 특징**

아래 ▭ 안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어, 시구	표현 효과	표현 방법
비옹이 말했다. ~ 거복이 말했다.	인물이 가진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6) _____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7) _____

***문답 형식**: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형식
***물음의 형식**: 의문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형식

***주제 정리**

(나)의 글쓴이는 무두장이가 천하다고 주장하는 비옹(사대부)과 이에 반박하는 거복(무두장이)의 대화를 통해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주제**는 '사대부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다.

4th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

	(가)	(나)
공통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대부를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사대부 작가의 인식이 드러남.	
차이점	사대부가 비판의 주체로 등장 함.	사대부가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함.

❖ 정답: 다음 페이지에



문제 풀이 특강

B01 작품 비교하기

[① 6% ② 4% ③ 19% ④ 62% ⑤ 5%]

① (가)와 (나)는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열거와 연쇄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 아니 두려울까'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세금 제도로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거복은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사대부의 위선적 행동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선의 이동이나 심리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Tip

✪ 작품 비교하기 유형

ⅰ) (가)에 해당하는 선택지 먼저 풀기
②, ③, ④, ⑤번 선택지 풀기 ➔ ④번 선택지만 적절함.

ⅱ) 남은 선택지의 설명이 (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④번 선택지가 (가)와 (나)에 모두 적절함.

B02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① 4% ② 2% ③ 7% ④ 80% ⑤ 3%]

④ ⓔ에서 비옹은 무두장이가 '손으로 흉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며 자신과 무두장이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처럼 ⓔ에는 상대의 처지가 자신과 달리 더럽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Tip

✪ 작품 비교하기 유형

ⅰ) 글의 내용과 화자, 글쓴이의 생각과 정서 파악하기
(나)는 '비옹'과 '거복'의 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음.

ⅱ) 글의 흐름에 따라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비옹'은 무두장이인 '거복'이 천하고 더럽다고 생각함.

지문 분석 특강 빈칸 정답 (1) '농사' (2) 백성들 (3) 문답법 (4) 은유법 (5) '무두장이' (6) 문답 형식 (7) 물음의 형식

B03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① 6% ② 4% ③ 8% ④ 5% ⑤ 75%]

⑤ ⓑ와 ⓒ는 모두 거복이 들려준 일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키가 작고 허리가 굽은 '재상'에 대해 ⓑ는 키가 크고 허리가 곧다며 아첨을 하였고, ⓒ는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다며 진실을 이야기하였다. 그 결과 ⓑ는 벼슬아치가 되고 ⓒ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Tip

✪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유형

ⅰ) 인물의 상황 파악하기
ⓑ '객'과 ⓒ '객'은 모두 거복이 말하는 일화에 등장하는 인물임.

ⅱ) 상황에 놓인 인물의 생각 파악하기
- ⓑ '객': 거짓을 말하며 '재상'에게 아첨함. ➔ 벼슬아치가 됨.
- ⓒ '객': '재상'에게 진실을 말하며 아첨하지 않음 ➔ 형벌을 받음.

B04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① 7% ② 9% ③ 13% ④ 22% ⑤ 46%]

① (가)의 화자는 '밭이랑에 좋은 씨앗 일궈 묵힐 자리 살'피고 '모춘(늦은 봄)'에 때를 맞춰 농사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즉, 왕실에서 소인을 쫓는 일을 농가에서 악초를 제거하는 일에, 왕실에서 군자를 등용하는 일을 농가에서 좋은 벼를 재배하는 일에 빗댐으로써 '소인 쫓고 군자 등용'을 못 하는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③ (나)의 비옹이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다고 하자, 거복은 사대부도 '살생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며 반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자의 살생은 무두장이의 살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비옹의 위선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④ (가)의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렴은 어이 할꼬'에서 세금 제도로 인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나)의 거복이 비옹에게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는 장면에서 사대부가 백성을 괴롭히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⑤ (가)의 화자는 '천하 대본', 즉 천하의 큰 근본이 농사뿐이라고 말하며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고 있다. (나)에서 비옹이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군자와 무두장이의 살생이 같다는 거복의 말에 분노한 것이다. 비옹이 무두장이의 삶을 낮추어 보는 것은 맞지만, 무두장이가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지는 않다.

Tip

✪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유형

ⅰ)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 파악하기
(가)와 (나)는 비판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대부를 통해 주제 의식을 구현함.

ⅱ) 작품에서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와 관련된 부분 찾기
- (가)의 사대부: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주체로 등장함.
- (나)의 사대부: 위선적 태도를 보여 주는 인물로,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함.

E 어휘 + 개념어 TEST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20]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제정하다 일없다 양상 생면부지 귀천
지연하다 생동감 횡행하다 회한 비로소
호응 상반되다 취하다 고심하다 당도하다
착잡하다 흔쾌하다 주최하다 지정되다 대처하다

01 기쁘고 유쾌하다. (　　)

02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다. (　　)

03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 (　　)

04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 (　　)

05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따위에 대답하거나 응함. (　　)

06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 (　　)

07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　　)

08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　　)

09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　　)

10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게 되다. (　　)

11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　　)

12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 (　　)

13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열다. (　　)

14 뉘우치고 한탄함. (　　)

15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다. (　　)

16 어떤 곳에 다다르다. (　　)

17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 (　　)

18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

19 가리켜져 확실하게 정해지다. (　　)

20 신분이나 일 따위의 귀함과 천함 (　　)

* 헷갈리는 의미 정확히 알기

[21-40] 다음의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21 일이 끝나기 전이나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치르다. (선불하다, 후불하다)

22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다. (동정하다, 동경하다)

23 공간이 좁고 작다. (협력하다, 협소하다)

24 같이 사업을 하다. (동업하다, 동참하다)

25 약간 움직임 (미동, 역동)

26 사람을 골라서 씀. (남용, 채용)

27 반역을 꾀함. 또는 그런 일 (역전, 역모)

28 매우 흔함. (지천, 지체)

29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고통, 심통)

30 더러워진 이름이나 명예 (오명, 오인)

31 차나 배 따위가 뒤집힘. (전출, 전복)

32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위로, 위조)

33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 (수행하다, 수선하다)

34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간간이, 근근이)

35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지다. (경화되다, 심화되다)

36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시선)

37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누수, 누명)

38 어리석고 고지식하다. (듬직하다, 우직하다)

39 일정한 한도가 정하여지거나 그 한도가 초과되어 못하게 막히다. (제한되다, 제약되다)

40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지장, 화장)

Special

* 고난도 최신 기출 모의고사

[회별 15문항, 제한시간 25분]

1회 **모의고사** — 2026 실시 3월 고2 학력평가

2회 **모의고사** — 2025 실시 3월 고2 학력평가

*출제 범위: 고1 국어 전 범위

유형	문항 수	출제 경향
현대시	3~4 문항	다양한 주제의 현대시가 출제된다. 제시문, 고전시가, 수필과 함께 복합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고전 시가	3~5 문항	사설시조, 연시조, 가사 등이 다양하게 출제된다. 주로 수필과 함께 복합으로 출제된다.
현대 소설	3~4 문항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담은 작품들이 출제된다. 〈보기〉를 통해 작품에 담긴 시대상과 주제를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다.
고전 소설	3~4 문항	영웅소설, 애정소설, 가정소설이 주로 출제된다. 현대소설에 비해 등장인물이 많고 갈등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회 고난도 최신 기출 모의고사

2026년 3월 24일 시행
(고2 학력평가)

- 문항 수 15개
- 제한시간 25분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으로 돌아오니, 별선이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오늘 잔치에서 무엇이라 하더이까?"

학공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나를 죽이자 하니 어인 말인고? 그대가 이르는 대로 작은 잔을 들어 술 삼 배만 먹었노라."

하니 별선이 깊이 숨을 쉬고 눈물이 비 오듯하며 말을 못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오늘 밤 축시에 낭군을 죽이자 하고 잔치를 배설하였나이다."

하니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놀라 기절하였다가 반나절 만에 인사를 차리며 말하기를,

"이제는 내 목숨이 함정에 든 범이요, 독에 든 쥐라.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게 되었도다."

하고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치며 통곡하니 별선은 낭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천하가 넓다 하여도 이제 보건대 좁기도 하도다. 조그마한 낭군의 일신을 감출 곳이 없으니 답답하고 가련하도다. 내 벌써 이 말을 하고자 하나 애처로운 거동과 기탄하는 양을 차마 보지 못할뿐더러 또한 자결할까 하여 지금까지 말을 못 하였거니와 이제 낭군이 죽으면 나도 한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도다." / 하며,

"불쌍토다! 우리 낭군. 가련하다! 나의 일이. 답답하고 가련한 이 설움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인제 가면 어느 때나 다시 올까? 초로 같은 인생이 뜬구름같이 스러지니 어느 때에 다시 볼까? 명년 춘삼월이 돌아오면 꽃은 다시 보려니와 불쌍한 우리 님은 오늘 밤에 죽게 되면 황천에 다시 만나 볼까? 서산에 지는 해는 명일이면 보련만은 답답하고 원통하도다. 오늘 밤이 죽을 때일세. 설운지고. 아깝도다! 서산에 해가 지니 동녘에 돋는 달은 동창에 비치었다. 어리운 듯 밤이 되매 이제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한탄으로 지내노라니 학공이 울며 하는 말이,

"명명하신 하느님은 굽어살피소서. 가련한 학공이 오늘 밤에 **노비의 손에 죽나이다**. 이같이 죽은들 뉘라서 불쌍타 하오리까?"

하며 애통하니 별선이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낭군은 너무 서러워 마옵소서. 어머님도 야속하고 야속하지. 그 말을 못 참던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전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만났는고? 임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임 못 살지. 임 죽으면 내가 어찌 살까?"

하며 서로 붙들고 슬피 우니 눈물이 비 오듯 하는지라. 별선이 자탄하는 말이, / "무슨 일로 우리 두 사람이 연분을 맺어 나만 믿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이 모두 내 탓이라. 오직 **내 몸을 바꾸어 죽을 것**이오니 낭군은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하거늘 학공이 하는 말이,

"죽음도 몫몫이라. 바꾼단 말이 무슨 말인고?"

별선이 하는 말이,

"내 말을 자세히 들으옵소서. 만일 낭군이 죽으면 부모의 원수를 뉘라서 갚으오리까? 이 몸을 대신하여도 어두운 밤에 어찌 알리이까? 알 리가 없을 것이니 낭군은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낭군 누웠던 자리에는 첩이 눕고 첩이 누웠던 자리에는 낭군이 누워 있으면 침침한 야삼경에 뉘라서 분별하오리오. 낭군은 상투를 풀어 댕기를 드리우고 첩은 머리를 풀어 상투를 하오면 저놈들이 어두운 밤에 상투를 잡아낼 것이니, 낭군은 봇짐을 끼고 머리를 산발하고 먼발치로 따라오며 여자 목소리로 울면서 물가에 섰으면 그놈들이 첩의 신체를 물에 넣고 갈 것이니 물가에 앉아 슬피 울면 물 지키는 관리가 배를 타고 올 것이니 외치시기를 '나는 육지에서 이 섬 중으로 시집온 지 삼 년 만에 부친의 부음을 만나 가다가 배가 없어 못 가오니 물을 건너게 해 주시면 죽은 부친의 얼굴을 다시 뵙겠사옵나이다.' 하며 애걸하면 물을 건너게 해줄 것이니 육지에 나가거든 공부를 힘써 하여 아무쪼록 입신양명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사옵고 첩의 원수도 갚아 주시옵소서."

[중략 줄거리] 별선은 학공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는다. 학공은 황 승상의 양아들이 되고, 황 승상의 권유로 새로 장가를 가게 된다.

어느덧 길일을 당하매 별선의 생각이 더욱 간절한지라. 위의를 갖추고 예석에 이르니 신랑의 늠름한 풍채와 신부의 아름다운 태도는 가위 천정배필이라. 보는 자 누구 아니 칭찬하리오. 종일토록 잔치를 마친 후 날이 저물매 신방에 들어가 좌정하니 별선의 생각이 자연 더욱 간절하여 전전불매하더니 밤이 이미 깊었는지라. 마지못하여 침석에 누웠더니 비몽사몽간에 별선이 젖은 옷을 입고 들어와 낭군을 붙들고 낙루하며 말하기를,

"당초의 언약이 지중하거늘 이다지 허사가 될 줄 어찌 알았으리오? 이 방이 누구 방이라고 누웠으며 나 같은 박명 원혼은 주야로 낭군 생각이 간절하여 잊지 못하였더니 낭군은 좋은 시절을 다시 만나 숙녀를 취하여 이 같은 혼백을 생각지 아니하시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그러하오나 속담에 이르기를 탐화봉접*이라 하였으니 ㉠ 어찌 떨어진 꽃을 생각하고 새로 피는 꽃을 돌아보지 아니하오리까? 바라건대 낭군은 불쌍한 첩의 혼백도 생각하옵소서. 유명이 다르기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삐 돌아가오니 낭군은 내내 무양하옵소서."

하고 돌아가거늘 학공이 달려들어 붙들려 할 즈음에 홀연 간 데 없는지라.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심신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야로 별선의 생각이 간절하더라. 일일은 또 비몽사몽간에 별선이 와서 학공의 손을 잡고 몸에 피를 흘리고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망극한 정회는 풀었으나 또 온 것은 다름 아니오라 지금 국태민안하여 **황성에서 과거를 보인다** 하오니 아무쪼록 과거를 보아 참방하시거든 불공대천지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학공이 괴이히 여겨 과거 소문을 탐지하니 과연 과거를 보인다 하거늘 과것날을 기다리다가 그날을 당하매 시지를 옆에 끼고 장중에 들어가니 글제를 걸었거늘, 평소에 외우던 글이거늘 용연에 먹을 갈아 황모무심필 반 중동을 흠씬 풀어 일필휘지하니 **문장은 이태백**이요, **필법은 왕희지**라.

– 작자 미상, 〈김학공전〉

* **탐화봉접**: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

1회 01 2026 실시 3월 학평 31 (고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공은 별선의 만류에도 모친과 동생의 복수를 위해 잔치에 참석하였다.
② 별선은 잔치에 다녀온 학공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③ 별선은 학공과 자신이 모두 같은 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다.
④ 학공이 죽은 부친의 얼굴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 물지키는 관리가 도와줄 것이라고 별선은 생각하고 있다.
⑤ 학공은 신방에 신부가 들어왔을 때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1회 02 2026 실시 3월 학평 32 (고2)

'별선'이 ㉠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으로 학공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② 학공이 평생 자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③ 학공에게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④ 꿈에서나마 학공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⑤ 학공이 새로 신부를 맞이한 것을 이해한다.

1회 03 2026 실시 3월 학평 33 (고2)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김학공전〉에 관한 자료이다. ⓐ~ⓒ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시오.

- ⓐ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 구조

비범한 탄생 → 죽음의 위기 → 조력자의 도움 → 위기 극복 → 개인의 목표와 사회적 위업 달성

- ⓑ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동요
- ⓒ 조력의 방식: 해결 방안 제시, 초월적 능력 발휘, 죽음 이후 개입

①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학공이 슬퍼한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가족의 원수를 갚는 일이 학공의 개인적 목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② 학공이 '노비의 손에 죽나이다'라고 한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알 수 있겠군.
③ 별선이 '내 몸을 바꾸어 죽을 것'이라고 학공에게 말한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별선이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겠군.
④ 별선이 학공의 꿈에 나타나 '황성에서 과거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 준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별선이 사후에도 학공의 삶에 개입하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겠군.
⑤ 학공이 과거에서 쓴 답안이 '문장은 이태백'이고 '필법은 왕희지'인 것을 ⓐ와 관련지어 보면, 학공이 사회적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겠군.

❖ 정답 및 해설 342~347p

Special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헷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 표시하세요.

ㄱ

가관 [可 옳을 가 觀 볼 관]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

가담 [加 더할 가 擔 멜 담]**하다**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
예 적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다.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가정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

각별 [各 각각 각 別 다를 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예 이 물건은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인 [刻 새길 각 印 도장 인]**되다**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되다.

간간 [間 사이 간 間 사이 간]**이**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간신 [艱 어려울 간 辛 매울 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초로 (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 (暮雲)이 지나갈 제
> 죽림 (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섧다
>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
> – 허난설헌, 〈규원가〉

갈기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 등을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 때리거나 치다.

감내 [堪 견딜 감 耐 견딜 내]**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감복 [感 느낄 감 服 입을 복]**하다**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하다.

감흥 [感 느낄 감 興 일어날 흥]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강조 [强 강할 강 調 고를 조]**하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다.

강행 [强 강할 강 行 다닐 행]**하다**
강제로 시행하다.

강호 [江 강 강 湖 호수 호]
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강화 [强 강할 강 化 될 화]**하다**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

개입 [介 끼일 개 入 들 입]**되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

개진 [開 열 개 陳 늘어놓을 진]**하다**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예 발표자가 **개진하고** 있는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개키다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예 자고 일어난 자리의 이불을 잘 **개켜서** 치워 두었다.

개통 [開 열 개 通 통할 통]**되다**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가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되다.

객관적 [客 손님 객 觀 볼 관 的 과녁 적]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객지 [客 손님 객 地 땅 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거나하다
술 따위에 취한 정도가 어지간하다.

거동 [擧 들 거 動 움직일 동]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거북하다
몸이 찌뿌드드하고 괴로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

거사 [擧 들 거 事 일 사]
큰일을 일으킴.

거처 [去 갈 거 處 곳 처]
이미 갔거나 현재 가거나 미래에 갈 곳

거처 [居 살 거 處 곳 처]**하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다.

검거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되다**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억류되다.

격동 [激 과격할 격 動 움직일 동]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짐. 또는 그렇게 느낌.

견해 [見 볼 견 解 풀 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예 두 사람의 **견해** 차이로 회의가 길어졌다.

결렬 [決 결정할 결 裂 찢을 렬]**되다**
교섭이나 회의 따위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되다.
예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박 [結 맺을 결 縛 묶을 박]**하다**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이어 묶다.

결백 [潔 깨끗할 결 白 흰 백]**하다**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촐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다.

결의 [決 결정할 결 意 뜻 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결핍 [缺 이지러질 결 乏 가난할 핍]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예 그는 식사를 걸러 영양 **결핍**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겸비 [兼 겸할 겸 備 갖출 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예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

경계 [警 경계할 경 戒 경계할 계]**하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경과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시간이 지나감.

경물 [景 경치 경 物 만물 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경외 [敬 공경할 경 畏 두려워할 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경작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하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

경합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서로 맞서 겨룸.

경향 [傾 기울 경 向 향할 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계기 [契 맺을 계 機 틀 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계책 [計 꾀할 계 策 꾀 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꾀나 방법

고결 [高 높을 고 潔 깨끗할 결]**하다**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다.

고고 [孤 외로울 고 高 높을 고]**하다**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고봉 [高 높을 고 峯 봉우리 봉]
높은 산봉우리

고수 [固 굳을 고 守 지킬 수]**하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키다.
예 그는 10년 째 같은 머리 모양을 **고수**한다.

고심 [苦 괴로울 고 心 마음 심]**하다**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고이다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D 고전 소설

D 01~04

[2024 실시 6월 학평 31~34 (고1)]

∗ 작자 미상, 〈왕시전〉

출제 ❶ 중심인물, 배경 ❷ 중심 사건, 갈등 ❸ 서술상 특징

[앞부분의 줄거리] 왕언의 딸 왕시는 홍관 땅의 김유령을 만나 혼인을 했지만 나라의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다. (김유령의 아내 / ❶ 중심인물)

∗**관탈민녀 모티프**: 지배계층의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층민 여성의 정절을 뺏으려 하는 이야기 구조

[1] ❶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❷["제 나이 스무 살 되었을 때 아내(왕시)를 얻었는데,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늘 서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일도 잊은 채, # ❸ 관탈민녀 모티프가 나타남.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꿈에 선할아버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네가 ❶ 중심인물, 김유령을 조력하는 초월적 존재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갈 때 돈 일만 관을 가져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❸ [ ]: 인물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❸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❹"네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네 뜻을 자세히 말해라."

❺김유령이 말했다.

❻["도로 내어다 살기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와 하루만이라도 # [ ]: 김유령의 현실적 소망 – 궁녀가 된 왕시와 함께 살 수 없으므로 말이나 나누기를 바람.
만나보아 서로 말이나 나누었으면 합니다."]

❼도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❽"네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구나. (김유령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있음.)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다 말해라."

❾그러자 김유령이 다시 대답하였다.

❿"함께 살기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할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함께 살게만 해 주신다면 (김유령의 진정한 소원) 제가 두엄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 ]: ❷ 중심 사건 – 김유령이 화산도사에게 헤어진 아내와 함께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함.

〔**두엄**: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

∗[1] 요약 : 김유령이 화산도사에게 왕시와 다시 함께 살게 해 달라고 호소함.

(중략)

[2] ❶"접때 이 땅(김유령)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❶ 공간적 배경: 화산

❷그러자 도사가 대답하였다. ∗**적강 모티프**: 천상계의 존재가 천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지상으로 유배를 가는 이야기 구조

[A] ❸"네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대가 선간(仙間)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하고 # ❸ 적강 모티프가 나타남.
인간 세상에서 일 년만 좋은 일을 하면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제시했던 조건) 선간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그대의 말을 들으려 했더니, 그대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인가?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란 모질어 죄없는 사람이며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느니라.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어째서 살려주었느냐? 불쌍한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요구했던 내용) 것을 구제하라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더냐? 이 두 가지 (뱀, 도적) 일을 또 저질렀으니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너라. 그때 보자."
[A]: 화산도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뱀, 도적)을 살려 준 김유령을 질책함.

❹이러고는 간데없이 사라졌다. ❺김유령이 애닯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 ❷ 중심 사건: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제시함.
닫고는 들어앉아 조심하여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❻그렇게 ❸ 서술자: 3인칭 서술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왕시를 다시 만나기 위해 화산도사의 말을 따름. → 왕시를 향한 사랑이 드러남.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사 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 ❼그제서야 ❸ 시간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❶ 공간적 배경
도사는 김유령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❽"네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 될 때가 있고 쇠가 # [B]: 화산도사가 김유령의 단단한 성품을 칭찬하고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함.
[B]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되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 ❸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품을 드러냄.
사람이로다. 네게 이루어질 게 있으리라. 네 돈을 내라."

❾[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그중의 일백을 (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원)
던지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❿다시 서쪽으로 (: 초월적 존재인 화산도사가 도술로 불러낸 존재들)
일백을 던지자 이윽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또 일백을 북쪽으로 던지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나머지를 공중에다 던지자 이윽고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귀밑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이 오는 것이었다.] ⓫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⓬[ ]: ❸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냄.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에 가 왕시도 죽이고 오라."

⓭그러자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즉시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왕시도 죽이고 와서는 보고하였다.

⓮"왕시를 죽이고 왔습니다."

⓯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⓰"유령이를 살려내라." ∗**재생 모티프**: 살아 있던 것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거나, 훼손되거나 상실되었던 신체 일부가 되살아나는 이야기 구조

⓱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⓲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⓳"네 집에 가서 들어보아라.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❸ 재생 모티프가 나타남.)
담당 관리를 내어 석 달 만에 묻으면 (왕시를 살리기 위한 조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빨리 가라."

⓴유령이 청원하였다. /㉑"집이 두 달 걸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㉒그러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㉓"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㉔[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 [ ]: ❸ '도사가 부른 사람'이 도술을 부리는 데서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남.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㉕살펴보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❶ 공간적 배경: 김유령의 집
도착해 있었다.] ㉖들어보니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려고 하였다.

㉗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스무 날 내에 묻었다.

㉘김유령이 생각하니, 도사 말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기는 하나 그 시신을 묻고 보니 슬픈 심사가 더욱 그지없었다. (사랑하는 왕시가 죽었기 때문임.)

㉙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시를 묻었다고 아뢰려고 하였다.
화산도사에게 왕시를 묻은 사실을 알리려 함.

대령하다: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리다. 또는 그렇게 하다.
청원하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다.
자욱하다: 연기나 안개 따위가 잔뜩 끼어 흐릿하다.
관원: 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소청하다**: 하소연하여 청하다.

∗[2] 요약 : 김유령이 화산도사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고, 죽은 왕시를 묻어 줌.

③ ❶화산에 가니 마침 그 도사가 월궁도사를 만나러 간 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었다. ❷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이레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❸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그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더욱 민망해 하고 있었다.
화산도사에게 왕시를 묻은 일을 말하고자 찾아왔지만 열흘이 넘게 화산도사를 만나지 못함.

❹이윽고 천지가 자욱하고 천둥치고 바람불고 비내리고 어두워져 심사가 더욱 아득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❺그러더니 문득 날도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❻김유령이 나아가 뵙고, 왕시 묻은 일을 말하였다. ❼그러자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朱砂)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올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괭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❽또 동방에서 내치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왔다.
❸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초월적 존재인 도사의 신이한 능력을 나타냄.

❾도사가 그 푸른 옷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❿"저 귀신을 데리고 왕시의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가 두고 와라."

⓫그러자 푸른 옷 입은 놈이 그 귀신을 데리고 갔다. ⓬이윽고 북방의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⓭"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희국에다가 두어라."
죽은 왕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왕시를 아는 사람들을 유희국으로 보냄.

⓮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었다. ⓯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⓰"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려가라. 다만 왕시의 종들을 다 잡아온 것은 행여 일이 생기면 네가 잘못될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라."] [ ]: ❷ 중심 사건 – 화산도사가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신이한 능력을 발휘함.
김유령과 왕시가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암시함.

이레: 일곱 날
주사: 경련 · 발작을 진정시키는 데 쓰는 수은으로 이루어진 황화 광물. 흔히 덩어리 모양으로 점판암, 혈암, 석회암 속에서 나며 수은의 원료, 붉은색 안료(顔料), 약재로 쓴다. **괭이**: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하직하다: 무슨 일이 마지막이거나 무슨 일을 그만두다.

***③ 요약 : 화산도사가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도술을 부림.**

독해 공식 정답
❶ **중심인물**: 김유령, 화산도사
공간적 배경: 화산, 김유령의 집
❷ **중심 사건**: 김유령이 화산도사에게 헤어진 아내와 함께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함.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제시함. 김유령이 화산도사의 지시에 따라 왕시를 묻어 줌. 화산도사가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신이한 능력을 발휘함.
갈등: 드러나지 않음.
❸ **서술상 특징**
- **서술자**: 3인칭 서술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관탈민녀 모티프가 나타남.
- 인물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 적강 모티프가 나타남.
- 시간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품을 드러냄.
-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신이한 능력을 나타냄.
- 재생 모티프가 나타남.

■ **갈래**: 고전 소설, 애정 소설
■ **이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내용의 남녀이합형 소설로, 왕시와 김유령이 혼인 후 겪는 갈등과 고난,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이 드러난다. 또한 관탈민녀 모티프, 적강 모티프, 재생 모티프 등 다양한 이야기 구조가 나타난다.

■ **인물 관계도**



■ **주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순수한 사랑과 애정
■ **이것이 핵심!**: **〈왕시전〉에 반영된 모티프(화소)**

관탈민녀 모티프	지배계층의 남성(늙은 신하)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층민 여성(왕시)을 강제로 궁녀로 데리고 감.
적강 모티프	천상계의 존재(김유령)가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에 유배를 옴.
재생 모티프	화산도사가 살아 있던 김유령과 왕시를 죽인 후 다시 살려 냄.

■ **전체 줄거리**
홍관 땅에 사는 김유령은 왕언의 딸 왕시를 만나 19살에 혼인을 한다. 그러나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나라의 노신하가 왕시를 궁녀로 들여 둘은 헤어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령은 꿈에서 돈 일만 관을 가지고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는다. 화산도사를 만난 김유령은 도사에게 왕시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화산도사는 김유령에게 1년 동안 선업을 쌓고 오라는 과업을 부여하지만, 김유령은 악한 존재인 뱀과 도적까지 살리고 만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근신하라는 명을 받는다.

김유령이 4년 만에 다시 입산하자, 화산도사는 신인들을 불러 김유령과 왕시를 죽게 한다. 화산도사가 죽은 김유령을 다시 살리고, 석 달 안에 왕시의 장례를 치러야만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김유령은 스무 날 내에 왕시를 묻고 화산도사를 다시 찾아간다. 화산도사는 부적으로 다시 신인을 불러 왕시의 무덤에서 시신을 파 화산 밑에 둘 것과 왕시의 종인 무빙도 유희국에 둘 것을 명한다. 화산도사와 작별한 뒤 김유령은 왕시를 다시 만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함께 80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천상계의 존재였던 김유령은 그 흔적이 남지 않았다. (: 지문 수록 부분)

D 01 정답 ① ∗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정답률 8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 정답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김유령과 화산도사의 대화

> ①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 김유령이 말했다. ~ 도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러자 김유령이 다시 대답하였다.

김유령과 화산도사의 대화를 중심으로 김유령이 화산도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와 김유령의 소원 등을 드러내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오답 ?

②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김유령이 화산도사를 처음 찾아가 소원을 말한 것, 이에 화산도사가 과업을 제시한 것, 김유령이 그 과업을 수행하고 화산도사를 다시 찾아간 것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로 성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드러내지 않음.

> ②-⑩ 다시 서쪽으로 일백을 던지자 ~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귀밑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이 오는 것이었다.

도사가 돈을 던져 부른 다양한 신인들의 겉모습을 묘사하였을 뿐, 이를 통해 성격의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하지 않음.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표출하지 않음.

> ②-❺ 김유령이 애닯고 민망해 집에 와서 ~
> ②-㉘ 김유령이 생각하니, ~ 슬픈 심사가 더욱 그지없었다.
> ③-❷ 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이레가 되어 ~

서술자가 김유령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화산도사가 바르지 못한 것을 살려 준 김유령을 질책하는 장면은 일방적인 비판이다. 따라서 이는 두 인물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없다.

D 02 정답 ①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 [정답률 8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정답?

① 김유령은 도사에게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하였다.
처음에는 아내와 살고 싶다는 진심을 털어놓지 않았음.

> ①-❻ " ~ 그저 나와 하루만이라도 만나보아 서로 말이라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 ①-❿ "함께 살기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할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 "

김유령은 처음 도사가 뜻을 물어보았을 때 하루만 아내(왕시)를 만나 말을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도사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진짜 소원을 이야기한다.

왜 오답?

② 도사는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왕시와 함께 사는 것 / 삼 년간 조심하는 것

> ②-❸ " ~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더냐? 이 두 가지 일을 또 저질렀으니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너라. 그때 보자."

화산도사는 왕시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삼 년간 조심'하라는 과업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김유령이 '행실을 삼가고' '사 년 만에 화산으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능력을 발휘한다.

③ 김유령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왕시의 시신을 스무 날 안에 묻었다.
왕시의 시신을 석 달 안에 묻으라는 화산도사의 말을 따름.

> ②-㉗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스무 날 내에 묻었다.

④ 김유령은 왕시의 시신을 묻고 난 이후 도사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화산으로 갔다.
화산도사를 만났던 곳

> ②-㉙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시를 묻었다고 아뢰려고 하였다.

⑤ 도사는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무빙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유희국으로 데려가게 했다.
김유령의 소원을 이뤄 줄 신인

> ③-⑫, ⑬ 이윽고 북방의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 "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희국에다가 두어라."

D 03 정답 ②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 [정답률 8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정답?

② [A]에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는 태도가, [B]에는 상대의 성품을 칭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악한 뱀과 도적을 살려낸 김유령의 행동 / 김유령이 지닌 굳은 의지

> ②-❸ " ~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더냐? ~ "
> ②-❽ "네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 될 때가 있고 쇠가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되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이로다. ~ "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에게 일 년 동안 선업을 쌓고 오라고 했으나 김유령이 다른 생명들에게 해를 끼치는 뱀과 도적을 살려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B]에서 화산도사는 자신의 명대로 몇 년간 행실을 삼가고 근신한 김유령의 굳은 의지를 돌과 쇠에 비교하며 칭찬하고 있다.

왜 오답?

① [A]에는 상대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B]에는 상대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비판과 질책 / 인정과 칭찬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행동을 질책하며 김유령에게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김유령을 설득하거나 회유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굳은 의지를 칭찬하고 있으며, 조롱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음. / 나타나지 않음.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을 당장 도와주지 않고 '삼 년 간 더 조심'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조언은 나타나지 않는다.

[B]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④ [A]와 [B]에는 모두 상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러난다.
나타나지 않음.

[A]에서 화산도사는 상대인 김유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B]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김유령의 미래를 언급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들어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B]에서는 유보하지 않음.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이 '이 두 가지 일을' 저지른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김유령이 아내와 이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삼 년' 뒤로 유보하고 있다.

[B]에서는 김유령이 화산도사의 말을 따라 삼 년 동안 '행실을 삼가고'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김유령이 아내와 이별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D 04 정답 ④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1등급 대비

[①3% ②9% ③28% ④53% ⑤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❶〈왕시전〉은 여인을 향한 남성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❷혼인한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재회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❸그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선계의 존재였다고 설정하는 등의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난다.
왕시와 함께 살고자 하는 김유령의 굳은 의지 / 노신하가 왕시를 궁녀로 데려감. / 화산도사가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줌. / 김유령이 화산도사의 도움을 받음. / 김유령은 선간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났음.

단서+해결

단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 〈왕시전〉은 왕시를 향한 김유령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왕시와 김유령은 노신하가 왕시를 궁녀로 데려가면서 헤어지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적용 작품에 반영된 전기적 요소
① 남자 주인공이 신선계의 존재였음. ➜ 김유령은 선간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 신선계의 존재임.
②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함. ➜ 김유령은 화산도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함.

해결 김유령은 신선계의 존재이긴 하나, 초월적 존재인 화산도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

오답 정답 ?

④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장면에서, ~~김유령~~ 화산도사이 부리는 도술이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것임을 알 수 있겠군.

> ②-㉒~㉕ 그러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

김유령이 집까지 돌아가는 데 두 달이 걸린다고 말하자, 화산도사는 김유령이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신이한 능력을 발휘했다. 즉, 김유령이 초월적 존재인 화산도사의 힘을 빌린 것은 맞지만, 도술을 부린 주체는 화산도사이다.

오답 오답 ?

①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라고 김유령이 말하는 장면에서, 외부의 힘(노신하의 압력)에 의해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근거: ①-❷, 〈보기〉 ❷문장

노신하가 김유령의 아내인 왕시를 강제로 궁녀로 만들어서 김유령과 왕시가 헤어지게 된 것은 노신하의 압력이라는 외부의 힘 때문이다.

② '그대가 선간(신선이 사는 곳)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전생(신선이 사는 곳에서 내려왔음.)에 신선계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겠군.

∗ 근거: ②-❸, 〈보기〉 ❸문장

화산도사는 김유령이 선간에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므로 일 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선행을 하도록 하여 선간에서의 죄를 사해 주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유령이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 전 신선계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장면에서, 왕시에 대한 김유령의 애틋한 사랑을 알 수 있겠군.
왕시와 다시 함께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임.

∗ 근거: ②-❺, ❻, 〈보기〉 ❶문장

김유령은 화산도사의 질책을 받고 난 후, 화산도사가 시키는 대로 '행실을 삼가고'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왕시와 재회하여 다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화산도사의 말을 따르는 김유령의 강한 의지와 왕시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다.

매력 오답 김유령이 삼 년간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론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②-❸에서 김유령이 화산도사의 질책을 받고 나서 '행실을 삼가고'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화산도사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왕시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다. 즉, 이는 왕시를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된 행동임을 추론했어야 한다.

⑤ '그대의 소원(왕시와의 재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근거: ①-⑩, ③-⑯, 〈보기〉 ❷문장

김유령이 화산도사에게 왕시와 재회해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소원을 이야기하자,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도사의 발화는 왕시와 김유령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 것임을 암시한다.

D 05~07

[2026 실시 9월 학평 31~33 (고1)]

작자 미상, 〈정수경전〉

출제 ❶ 중심인물, 배경 ❷ 중심 사건, 갈등 ❸ 서술상 특징

❶ ① 그 점치는 사람(조력자)이 산통을 흔들고 점을 치더니 이윽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❷ "그대는 네 번 죽을 운수에서 한 번은 면하였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세 번 죽을 운수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 ]: ❷ 중심 사건 - 점쟁이가 정수경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것임을 예견함.
점쟁이가 정수경의 운명을 예견함.

❷ 하고서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더 이상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❹ 수경이 이 말을 듣고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여 일어나 절하고 말했다.

❺ "화복길흉(禍福吉凶)은 사람의 운수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죽으면 만 리 밖에서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바라건대 점술가께서는 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정해진 죽을 액을 막을 수 있도록 방책을 가르쳐 주옵소서." [A]
❶ 중심인물 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드러냄.
운명론적 세계관을 수용함.
모친의 걱정을 언급하며 점쟁이의 동정심을 유도함.
점쟁이에게 죽을 운명을 피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함. ➜ 다가올 운명을 극복하려는 의지

❻ 하고서는 계속해서 울었다.

❼ 수경이 울음을 터뜨리자 점쟁이가 수경에게 말하였다.

❽ "임의로 액을 막을 수 있다면 어찌 운수가 불길한 사람이 있겠는가? 부질없는 말 하지 말고 곧 고향에 돌아가 모친의 얼굴이나 다시 뵙도록 하여라."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정수경의 요청을 거절함.
정수경에게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으므로 체념하고 죽기 전에 어머니를 뵙고 오라고 함.

❾ 하니 수경이 다시 **애걸하**였다.

❿ "[저는 혈혈단신 외아들로 어린 시절 일찌감치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분수에 맞지 않게 과거에 참여하고자 하여 모친께서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경성에 왔습니다.] 제가 죽을 운수가 세 번이나 있으나 다행히 점 잘 치는 선생님을 만났으니 이 액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책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시면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 ]: 자신의 처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점쟁이를 설득하고자 함.
자신이 죽으면 홀어머니 또한 고통을 겪게 됨을 들어 점쟁이의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함.

⓫ 하니 그 점쟁이가 말했다.

⓬ "내가 액을 막을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 줄 것이니 그대는 명심하고 간수하라."
정수경의 간절한 설득으로 수경의 요청을 받아들여 죽음을 피할 방법을 알려줌.

⓭ 하고 상자를 열어 백지 한 장을 내어놓고 누런 색깔로 대나무 하나를 그려 주며 말했다.
□: 정수경의 목숨을 구하는 소재

⓮ "앞으로 겪을 두 번의 액도 흉악하고 참혹하지만 그래도 천만요행(千萬要行)으로 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닥칠 일은 더욱 흉악하고 참혹하여 감당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이것을 내어놓으면 너를 구해 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그야말로 귀 막고 방울 흔드는 격이다." [B]
❸ [ ]: 점쟁이의 예언으로 이후 사건을 미리 제시함.
뜻밖에 얻어지는 행운
신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써 처형당할 위기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견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줌.
정수경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운명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산통: 점을 칠 때 산가지를 넣어 흔드는 통
화복길흉: 좋은 일과 나쁜 일, 불행한 일과 행복한 일
액: 모질고 사나운 운수
모면하다: 어떤 일이나 책임을 피를 써서 벗어나다.

∗① 요약: 죽을 운명에 맞서서 살 방책을 찾는 정수경